

인촌 정신과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 길 (강연 요지)

주대환(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

인촌 사랑 운동은 아름답다!

제가 지금, 제 인생 최고의 영광스런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최영대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고장 고창을 지켜주시고, 인촌의 생가를 보존해주시고 앞으로 그 분의 명예를 지켜주실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앞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인촌 사랑 운동이 단지 우리 고장에서도 이런 훌륭한 인물이 태어났다고 자랑하는 그런 차원의 운동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운동이다,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다시 쓰는 일이다, 그래서 북한이 흔들리고 통일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하는 운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은 전 국민의 운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유족과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인촌기념회가 있지만,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닌 듯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들 모든 시민이 자발적 운동으로 전개할 때, 그 의미는 온전하게 전달되고, 비로소 전 국민의 운동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는 유족이나 김씨 집안의 문제도 아니고, 나라의 문제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혼미와 퇴행 속에 한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듯하지만,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70여년 한국의 발전은 기적이었습니다. 세계 학자들이 그 원인, 원동력을 밝히느라 연구하고 토론한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적이 끝나버린 듯합니다. 국민 통합의 리더십은 실종되고, 온갖 사회갈등은 갈수록 증폭되고, 서울거리는 날마다 시위대로 가득찹니다.

국제 정세도 크게 바뀌고, 대외 관계도 불안합니다. 중국이 발전하여 힘이 세어지면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우리나라가 120년 전에 독립문 세우기 이전처럼 중국 제후국이나 비슷한 처지가 되어 눈치보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사드 보복에 경제가 휘청대고, 황사와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아와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씨조선 왕조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정도이지만, 중국이 석유 주고, 길고긴 북중 국경에서 밀무역을 방치하고 있으니 유엔제재에도 불구하고 저 이상한 나라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중국 사람들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일본과는 관계가 틀어지고 있으니, 아래도 되는지 평범한 시민들도 불안할 지경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청년들이 낙관주의(optimism)를 잃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원래 다소 허황된 꿈에 부풀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도대체 노인들처럼 맥이 빠져 있습니다. 공부 조금 한다는 친구들은 전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그나마 모험심 있는 젊은이들은 해외 취업에 나서 이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진 나라인지를 되돌아보고, 이 나라 건국의 아버지들의 꿈과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인촌 김성수 선생과 같은 건국의 아버지들과 의논을 하여, 그 분들과 대화를 해서, 이 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잡고, 통일의 방향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등의 나라이고, 모든 국민의 인권과 재산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 헌법이 바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헌법이 만들어진 곳은 어디인가요? 다양한 의견을 절충하는 논의는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물론 나중에 공식적으로는 제헌국회에서 다루어졌지만, 그것은 이미 초안이 다 만들어져서 형식적인 절차로 토론하고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이고, 실제로 중요한 결정

이 이루어진 곳은 인촌의 사랑방이었습니다.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라는 우리나라 특유의 권력구조가 만들어진 곳도 인촌 사랑방이고, 농지개혁의 근거가 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확정된 곳도 인촌 사랑방이었습니다. 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박사가 바로 인촌이 키운 사람이고 보성전문, 지금의 고려대학교 교수였습니다.

흡사 짧은 글쟁이 최남선이 손병희 선생의 뜻을 받들어서 기미독립선언서를 썼듯이 짧은 유진오가 인촌의 뜻을 받들어서 제헌헌법을 기초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기초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전문위원들 절반이 인촌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촌은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이다!

여러분, 인촌은, 바로 고창 출신의 김성수 선생은 대한민국 건국 당시 조직과 자금을 다 댄 사람입니다. 3.1운동은 손병희 선생이 조직과 자금을 댄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건국은 김성수 선생이 조직과 자금을 댔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무식한 놈들이 인촌을 부관참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1962년에 추서된 건국훈장을 박탈하고, 고려대학교 앞길 이름을 ‘인촌로’에서 ‘고려대로’로 바꾼다고, 명패를 바꾸어 달고서는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놈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고려대학교를 없애지, 고작 거리 이름 명패를 바꾸어 달고서는 만세 부르다니, 가소롭고 웃기는 놈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인촌의 흔적이 지워지겠습니까?

인촌 김성수 선생은 온갖 굴욕을 참고 인내하면서 오해를 무릅쓰고, 전국의 유지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힘을 모아서 동아일보를 만들고, 고려대학교를 만들고 경성방직을 세웠습니다. 모두 우리나라 사람의 힘으로 만든 최초의 제대로 된 언론사요, 규모 있는 대학교요, 본격적인 근대 산업이고, 제조업 주식회사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성방직 같은 큰 산업체를 수 천, 수 만 개 가진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바로 경성방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키운 기술자와 엔지니어와 경영자들이 해방으로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공장들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친일파로 모는 자들이야말로 배은망덕한 놈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그 분의 은덕을 입고 그가 닦아놓은 기초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남의 집 머슴살이라도 해서 먹이고 재워서 키워놓았더니 부모를 부끄러워하고, 무슨 일이든지 부모 탓을 하는 배은망덕하고 철없는 자식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렇게 철없는 짓을 자꾸 하면 하늘이 벌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여 우리 후손들이 거지가 되어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배고파서 울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늘이 무섭고, 또 선생님께 죄송하여, 작년에 난생 처음 고창에 와서, 인촌 생가를 들러서 고개 숙여 사죄를 했습니다. 또 난생 처음으로 인촌이 정성을 쏟아 세운 고려대학교 본관도 둘러보고, 그 앞에 서있는 선생님의 동상에도 절을 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아낸 그 시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군국주의자들의 미친 광란에 속마음이야 어떻든 일단 겉으로는 박수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태평양 전쟁의 시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문이 다 폐간되고 유일하게 발행되던 총독부 기관지를 보고서 설불리 판단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중에 북한에서 김씨조선이 무너지고 나서 ‘로동신문’ 기사를 근거로 해서, 김일성 동상에 절한 사람, 충성 편지 쓴 사람 모두 세습독재 부역자로 처벌하자면 몇 사람이라 해야 할까요? 북한 인구의 절반쯤 해야 할까요? 아마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또 당장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74년이 지난 후에, 그때 대통령을 누가 할지 모르지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김씨조선 잔재의 청산이 아직 안 되었다고 외쳐야 할까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를 함께 살아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더 올바른 기준을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민특위의 조사 대상에 오른 적이 없는 사람을 지금 우리가 친일파니 뭐니 하는 것은 실로 건방진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거의 다 살아있던 해방 정국에서 반민특위도 설치되었고, 조사도 하고 재판도 했습니다. 그랬지만 인촌은 조사 대상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방정국에서 선생님은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만약 인촌이 진짜로 친일파였다면, 누가 지도자로 모셨겠습니까? 인촌은 좌익 쪽에서 발표한 인민공화국에도 문교부 장관으로, 요즘으로 치면 교육부 장관으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1955년 2월 18일 인촌이 돌아가시고, 2월 24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장례식은 국민장(國民葬)이었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는 건국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인촌과 함께 일제의 압제를 견뎌냈던 분들이 거의 살아있던 그 때의 국민장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 자리에 참석한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미친 사람들인가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공(金公)은 우리나라의 큰 교육가였으며 애국지사였음을 우리 사람들은 영구히 기념할 것이며 또한 그는 지금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가라고 불리우기는 합당치 않은 사람이었으니 그도 이것을 싫어하여서 정당 방면으로 나서기를 대단히 싫어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촌은 누구나 당연히 인촌의 것이라고 생각한 종로 지역구를 월남한 조선민주당 부위원장 이윤영 목사에게 양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인들 모두가 당연히 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초대 국무총리도 이범석 장군에게 양보하였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의 추대로 제2대 대한민국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분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중요한 인물이고 호남이 낳은 큰 인물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는 다시 쓰여져야 한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대한민국을 건국한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다섯 분을 이승만(1875년생), 김성수(1891년생), 신익희(1894년생), 조봉암(1899년생), 그리고 조만식(1883년생)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1948년 시점에 이승만은 74세, 조만식은 66세, 김성수는 58세, 신익희는 55세, 막내 조봉암은 50세로서 가장 연세가 많은 이승만보다 24살 어린 사람이니 아들 뺏

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분은 이승만과 김성수입니다. 모든 쟁점은 이화장과 인촌 사랑방에서 조정되었습니다. 굳이 말하면 미군정 시절 여당(與黨)은 한민당이었습니다. 한민당 사람들이 미군정의 행정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대중적 지지가 높았던 이승만과 전문가와 엘리트 집단을 대표하고 여당 당수인 김성수, 이 두 분이 모든 문제를 조정하는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의 민주정부가 보다 넓은 기반 위에 서야만 정통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임정 계에서 실력 있고 야심만만한 신익희에게 특별히 권유하고, 공산당 계의 고참 지도자 이면서 비주류로 밀려나있는 조봉암 선생에게 고급 정보를 제공하면서 설득하니, 두 분은 과거의 동지들과 결별하고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신익희와 조봉암은 물론 과거의 동지들로부터는 배신자 취급을 받았지만, 역사는 그 분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여해서 진정한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어보라는 미국 사람들의 권유를 받아들인 그 분들의 결단으로 대한민국은 거의 모든 주요한 독립운동 세력이 참여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평양에 남아 있다가 살해당하신 조만식 선생을 왜 다섯 손가락 안에 넣어야 하는가? 북한에서 반동으로 몰리거나 땅을 잃은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이 월남했습니다. 이 분들이 모두 대한민국 건국에 앞장섰는데요, 그 분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로 조선민주당의 당수 조만식 선생을 넣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섯 분, 이승만, 김성수, 신익희, 조봉암, 조만식, 이 분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가 다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섯 분이 다른 견해로 토론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대한민국을 건국 한 이야기는 충분히 아름답고 뜻이 깊고, 극적이고 교훈적이라서 후손들에게 가르칠 만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역사학자들이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괴짜괴짜한 전근대인, 유교 탈레반, 위

정철사파 선비 같은 지사(志士)들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편하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간혹은 대중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소위 대박 난 영화의 주인공을 미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보편의 가치에 대해서 무지하고 세계정세에 어둡고,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고 “내가 누군데” 하고서 오직 자신을 어떻게 대접해주는가만 보고서 잘못된 선택을 한 분을 영웅시하는 것은 오사마 빈 라덴을 영웅시하는 이슬람 탈레반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국의 지식인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쓸데없는 반일(反日) 민족주의 캠페인은 그만두어야 한다!

그들이 지금 인촌을 부관참시하고 있는 자들의 배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지금 팔십 노인도 해방 당시 다섯 살 어린아이들인데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그 무슨 광복회다, 뭐다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반일 캠페인 앞장서고 있지만, 공부 안하면 모르기는 늙거나 짧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어떤 역사의식의 발로이거나,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집단 정신병의 발작이고 콤플렉스와 집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위험한 것은 그런 광란이 대한민국 가치와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나라,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발휘하고 노력하여 성공할 기회가 주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늘이 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운동을 해주시라고 말입니다.

이런 운동에는 당연히 한일친선도 연관된 과제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식민지로 지배한 것은 제국주의 일본이지 민주주의 나라 일본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나라 일본은 대한민국과 공통의 가치를 나누고 있

는 우방국입니다. 그런데 반일 민족주의 감정을 정치에 이용하려고 자꾸 100년 전, 80년 전, 잘 알지도 못하는 과거를 끄집어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녀상을 전국 방방곡곡에 세우고 있습니다. 학교 교정에서 새 삼스럽게 일본 나무라면서 아름다운 고목들을 뽑아내고, 음악 선생 하셨던 분들이 일제 말기에 무슨 단체에 이름 올려서 무슨 대단한 영화(榮華)를 보았다고, 그 무슨 대단한 친일파라고 교가를 바꾸라고 육박지르고 있습니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짓을 찬성했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반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주장할까요?

우선 지금까지 역대 정권이 모두가 반일 민족주의 선동을 하고, 정치에 이용했습니다. 김영삼 정권도 심한 편이었습니다. 친일잔재를 청산하면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된 중앙청을 허물어버리고, “일본의 베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김영삼 특유의 혀 짧은 경상도 사투리로 큰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 반면에 김대중 정권이 가장 안한 편이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반일 민족주의 캠페인을 반대하셨을 것이라고 믿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진짜로 김대중 대통령이 친일파로 몰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 수 년 질질 끌던 한일회담이 마침내 타결되어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긴 정치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1964년부터 65년 사이에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격렬하던 때였다고 회고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야당 정치인들과 학생들, 청년 지식인들이 한일회담과 국교정상화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의원, 홀로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동지들로부터 ‘사꾸라’, 즉 여당의 첨자로 몰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분명히 김대중이는 친일파라고 욕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옳았음을, 그 분이야말로 용기 있는 정치인이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여 무역을 하고 기술을 도입하고 대일 청

구권 자금과 차관으로 경제 개발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중국이 문화대혁명이라는 미친 짓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세계시장에서 중국이란 거대한 경쟁자가 나타나기 전에 수출을 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런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반일 민족주의의 광란에 맞서 싸우자, 아무데나 소녀상 세우기를 거부하고, 유서 깊은 광주일고를 비롯한 많은 학교의 교가를 바꾸자는 전교조의 무모한 제안을 거부하고, 멀쩡하게 살아 있는 나무 뽑아내기도 거부하고, 성북구에서야 어떻게 하였든지 우리 고창에서는 ‘인촌로’의 도로명 바꾸기를 거부하고, 거꾸로 인촌 김성수 선생을 되살리는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역대 정권과 보수 진영 지식인들의 책임도 있다!

그러면 왜 인촌이 부관참시를 당할 정도로 이 나라 역사가 왜곡되었는가? 먼저 가장 큰 책임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 분이 장기 집권을 하지 않았다면 건국의 스토리가 이토록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승만의 장기 집권과 4.19혁명에 의한 강제 퇴진이 건국의 아버지들 모두의 명예를 망쳐놓았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두 번을 연임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세 번째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전통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인촌 선생이 대선배로서 후견하는 가운데 3대는 신익희, 4대는 조봉암이 물려 받았다면, 진작부터 우리나라로 더 아름다운 건국사를 자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1956년 대선 당시 이승만의 연세는 82세였습니다. 그런 이승만을 아부하고 꼬드겨서 말도 안 되는 사사오입 개헌까지 해가면서 장기 집권에 나서게 하여 평생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 밑에서 권력을 누린 이기붕이와 박마리아 부부를 저는 정말로 미워합니다. 결국 이 부부는 아들 이강석이가 권총을 쏘아서 가족 동반 자살하고 말았지만, 과연 그것으로 그들의 죄가 다 씻겼는지 모르겠습니다.

4.19와 5.16 이후 역대 정부들은 할 수 없이 임시정부 마지막 주석 김구 선생

을 중심에 놓고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려고 하니 자꾸 이야기가 꼬입니다. 그 분은 실은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를 하지 않았거든요.

흡사 조선 건국에 반대한 정몽주를 충신으로 높이 받들고, 조선이란 새 나라의 설계자인 정도전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역적으로 몰았던 조선 선비들의 정신분열적인 행동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구 선생은 이미 늦은 남북협상을 하려 평양으로 가면서 “38선을 베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일신의 안일을 위하여 단독 정부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결국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신 분들을 죄다 일신의 안일을 위하여 건국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세계사 최첨단의 진보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갖춘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백범 김구, 그 분은 크게 틀렸습니다. 비록 잘못도 저지르고,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신 분들이 옳았음을 지난 70여년의 역사가 대낮의 해처럼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역사는 더 신화가 되고 만화가 됩니다.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은 거의 성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백범을 아무도 비판할 수 없는 신성한 존재로 만들어놓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일제를 몰아내지 못한 콤플렉스 때문인가요? 하지만 임시정부가 조직한 광복군도 훈련만 하다가 전쟁이 끝나서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테러활동이라도 총을 들고 싸운 투쟁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쓸데없는 열등감으로 항일투쟁의 영웅들을 미화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과장합니다. 영화로 만들면 대박이 납니다. 하지만 사실의 왜곡이 너무 심합니다.

‘밀정’ 같은 판타지 영화를 만들어놓고서 김원봉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하자고 합니다. 하필 인촌 김성수는 서훈을 취소한 직후에 말입니다. 국민의 정신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원봉은 대한민국이 아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건국에 참여하여 장관이 되신 분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자랑스런 나라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는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당한 데 대하여,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 열등감, 그리고 우리 힘으로 일제를 몰아내고 건국하지 못했다는 콤플렉스가 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열등감에서 벗어날 때도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열등감이 없습니다.

보다 넓은 세계를 글로벌한 눈으로 바라보면, 근대문명과 산업혁명에 뒤처진 나라와 민족들이 식민 지배를 겪어야 한 것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부끄러워 할 일도 아닙니다. 또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제국주의의 시대가 끝나면서 비로소 세계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해방되고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건국 설화가 없다고, 위대한 영웅들의 서사시가 없다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베트남과 비교하여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조건이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역사를 사실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 탓보다는 자기 탓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숙한 세계시민, 선진국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이 독일 나치즘, 이탈리아 파시즘, 일본 군국주의의 패배로 끝났기 때문에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피 흘린 전 세계의 청년들에게 감사를 해야 합니다.

미군정은 우리나라에다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어주려고 하였습니다. 코리아라는 미지의 땅에 진주한 미군의 청년 장교들은 이상주의자들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진보적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그 자리를 물려 받은 트루먼 대통령의 정부 역시 이상주의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에서도 민주주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군정 3년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부끄러워서 그 역사를 다 지우고, 전부 우리 힘으로 건국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속이고, 후손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서울(Seoul)이란 이름도 미군정이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세계사에 진보적 민주주의 물결이 흐를 때 탄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좋은 때에 태어났다, 사주팔자가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누군가보다는 사주팔자가 더 중요합니다.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세계에서 결코 늦은 편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권리가 주어지는 가장 진보적인 민주주의 나라로 태어난 것입니다.

제헌국회의원 선거에는 90%를 넘는 투표율을 보여서 유엔 감시단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제헌국회 선거를 하고,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구성하고 마침내 유엔이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촌은 그 나라를 만든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다섯 분 중의 한 분입니다.

그 다섯 분 중에서 지금 그 명예가 성한 사람은 고당 조만식과 해공 신익희 두 분뿐인 것 같습니다. 이승만 박사야 장기 집권하다 쫓겨났으니 자초를 했다고 하더라도 인촌 김성수와 죽산 조봉암은 말도 안 되는 친일시비로 건국훈장을 빼앗기거나 아직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잘못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인촌은 근대 한국인의 전형(典型)이다!

인촌 사랑 운동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전형, 모범적인 인간형(人間型)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는 개인(個人)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라고 할 때, 한국인이 모여서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촌이야말로 한국인의 원형(原型)이라는 겁니다.

조선이 망하고 독립운동을 하던 시절 우리 조상들은, 조선 사람이 아닌 새로운 나라의 국민, 신한국인(新韓國人)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토론하고, 또 그와 같이 되기 위해 서로 권면하며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인촌이야말로 조선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이 인촌을 자신의 이상형으로, 모범으로 삼아서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60년대의 공화당 재정위원장이고 거의 2인자 자리까지 갖던 김성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촌을 존경하여 쌍룡양회 등의 회사를 세우고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국민대학을 인수하는 등 인촌의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촌은, 지금까지 한국인의 모범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바로 이것이 한국인이다. 너희들은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칠 수 있는 인간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인촌의 모습을 되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촌은 100년 전 당시 조선사람 가운데 실로 드물게도 근대인(近代人)이었고, 우물안 개구리, 위정척사파(衛正斥邪派) 류의 선비형 지식인이 아닌 코스모폴리탄 세계시민이었고, 허세와는 거리가 먼 실용주의자였습니다. 인도의 지도자 간디를 존경하여 1926,7년경에는 간디와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1930년경에는 마흔 나이로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특히 영국에서 1년 간 머물면서 영국 사람들의 실용주의 철학을 몸에 익히기도 하였습니다.

모두가 비분강개하고 술 마시고 있을 때, 인촌은 조용히 인재를 기르고, 실질적인 일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유학비를 대주어서 일본이나 미국, 영국 가서 과학과 기술을 배워오라고 지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남 앞에 나서거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근대인이고, 세계시민이고, 영국식 실용주의자였던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후배 청년들에게 연설하면서 목 놓아 절규했습니다. “힘을 기르소서, 힘을 기르소서” 실력 없이 무슨 독립을 합니까? 독립을 말로 합니까? 그런데 안창호의 절규에 가장 충실하게 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인촌 김성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인촌을 소개한 글을 보면 먼저 그가 얼마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사람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다는 이런 서술에 대해 저는 별로 믿지 않는 편이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촌은

경화사족(京華士族)이나 명문귀족(名門貴族)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껏 몰락 양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거의 평민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울산 김씨 집안 분들도 오셨다면, 울산 김씨가 양반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니 오해하지 모시기 바랍니다. 인촌의 두 아버지가 군수 벼슬을 했다고 하지만, 조선 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그 벼슬은 탄관오리들로부터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호신용 벼슬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리로서 입신출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얻은 벼슬이 아닌 것입니다.

인촌의 할아버지가 장성에서 고창의 부잣집으로 장가를 와서부터 근검절약으로 재물을 모으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집안은 봉제사접빈객(奉祭祀接賓客)의 허례허식으로 재물을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대부터 인촌 가문은 전통 양반이라기보다는 평민 출신 부자의 근대적인 사고와 행동 방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개화를 빨리하고 시대 변화에 즉응하여 부자가 되고, 자식들에게 근대 교육을 받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재력으로 수리 시설을 하고 저습지를 개간하고, 해안을 간척하여 농토를 늘려 소작농들에게 농토를 제공하고 가혹한 수탈을 해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서 부를 축적하니, 지주라도 봉건적인 지주라기보다는 근대적이고 자본가적인, 경영형 지주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촌은 귀족 출신이 아니고 평민 출신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겸손한 사람, 근검절약한 사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래서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분은 부통령을 하실 때에서 각하라는 호칭을 쓰지 말라고 지시를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각하라는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인촌은 우리 후손들에게 본받게 하고 싶은 인물입니다.

그 분이 아무리 큰 부잣집 아들이라도 아버지 돈으로 보성전문의 학교 터를 다 마련하고, 고려대학교의 본관, 도서관을 다 짓고, 동아일보, 경성방직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 분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자들과 유지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주식이나 기부금을 모아서 그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남을 설득하는 힘을 가진 민주적 리더였던 것입니다.

광복군 출신 역사학자이고, 후에 고려대학교 총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김준엽 총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고려대학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45년 광복과 더불어서이다. 귀국하자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드문 시절이라 서울대, 연대 등에서도 오라고 했지만 난 고대를 택했다. 그 연유는 나도 독립운동을 좀 했고, 평소 인촌 선생을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제시대, 그 당시에는 동아일보를 한국의 정부로 생각했었다. 말이 쉽지 일제의 탄압 아래서 신문경영, 학교경영, 기업경영 등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임시정부를 좀 알아서 김구나 이승만 등 지도자들을 많이 알았지만 인촌만큼 훌륭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인촌의 가장 존경할만하고 훌륭한 것은 사람 모으는 힘을 가진 지도자라는 점일 것이다. 근래의 역사 가운데 인재를 제일 많이 기르고 모은 분이라 생각된다.”

인촌은 다리가 짧고 머리가 컸습니다. 바로 저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미남이라고 할 수는 없고, 지극히 평범하게 생긴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은 근대 한국인의 전형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을 기려야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3년 8월 15일 광복 48주년 동아일보 특별기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촌은 비록 감옥에 가고 독립투쟁은 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독립투쟁 못지않게 우리 민족에 공헌을 했다고 나는 믿는다. 인촌은 동아일보를 창간해 우리 민족을 계몽하여 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큰 힘을 주었다. 그 공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다. 인촌은 오늘의 중앙고와 고려대를 운영해서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여 일제 치하에서 이 나라를 이끌 고급 인력을 배출, 우리 민족의 내실 역량을 키웠다. 인촌은 또한 근대적 산업규모의 경성방직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도 능히 근대적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촌 사랑 운동을 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운동을 하고, 건국의 아버지들의 실용주의 정신을 되살리는 운동을 하면, 혹시 지금 지들 세상이라고 위세를 떨치고 있는 ‘진보’가 우리를 ‘보수’라고 낙인찍고

탄압이나 하고 나올까 걱정이 되십니까? 저는 바로 그런 사태야말로 우리가 무서워서 피해야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논리에 갇혀서 할 말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금기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가짜 진보 친북 주사파, 전대협 출신 386 정치인들, 상위 10% 대기업 노동자의 기득권을 지키는 민주노총이 우리 편이 아니라도 상관없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거부해야 합니다.

왜 북한 인권의 참담함을 말하면 극우가 되고, 김정은 독재정권을 비판하면 보수가 되고, 반(反)평화주의자가 됩니까? 그러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미국 민주당 출신이죠, 그런 분들,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이 모두 한국 민주당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것 아닙니까?

민족주의라는 독주, 아니 독약에 취해서 지성이 마비되고, 이상하게 친북적이고, 인류보편의 가치를 상실하고, 개념을 상실한 한국의 진보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잣대로 보면 가짜 진보라는 것입니다. 자유도 평등도 인권도 모두 잊어버린 진보가 무슨 진보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기존의 거짓 진보와 가짜 보수를 다 갈아엎고, 새 판을 짜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통일의 방향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